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정치 갈등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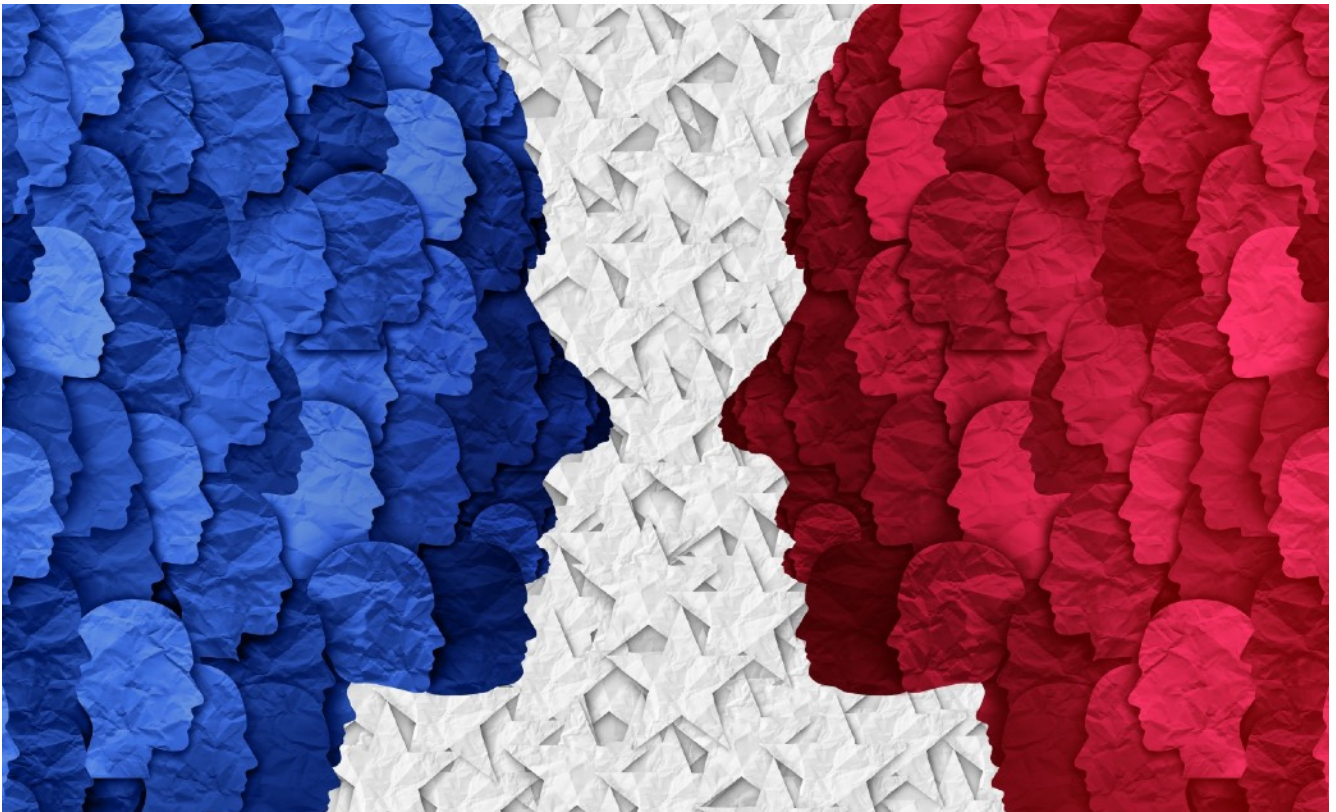
담임목사의 정치적 성향, 동 연령대 일반국민에 비해 보수적!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어린이들의 행복과 고민

2) 북한에 대한 인식

3)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



한국교회 담임목사의 정치적 성향, 동 연령대 일반국민에 비해 보수적!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오는 이 두 문장은 오늘까지도 인간을 정의하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정치는 개인과 집단 간의 이익, 가치, 목표를 조율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 인간은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권력을 얻고 행사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쟁한다. 언어와 지능을 가진 인간이 사회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활동이 바로 정치인 셈이다.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 체계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상반되는 방향성이 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개신교인일수록 전통과 안정, 권위를 중시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마련인데, 주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담임목사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일반국민은 물론 동일한 연령대에서도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번 <넘버즈 193호>에서는 우리 사회의 정치 갈등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집단갈등과 정치 성향을 이해하고 목회에 참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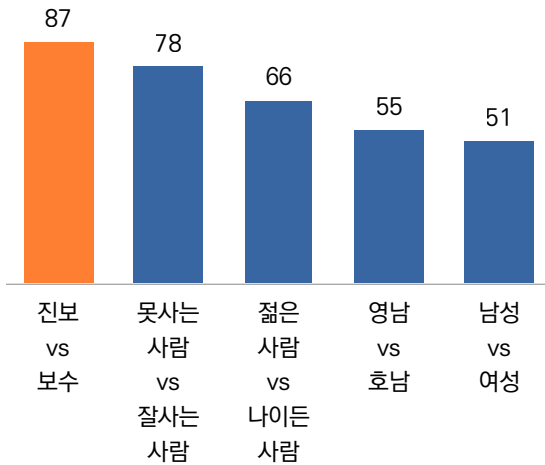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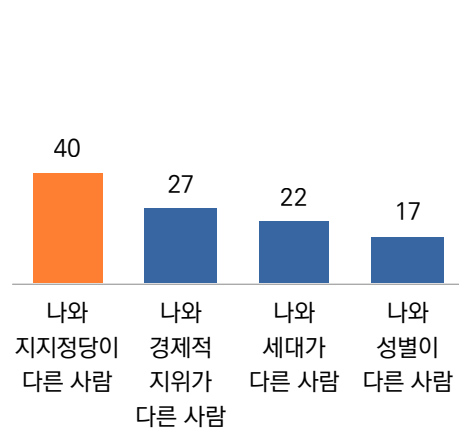
[집단 갈등과 혐오 실태] 집단 간 갈등 중 '이념 갈등' 가장 심각해!

- ▶ 몇몇 주요 갈등 집단을 제시하고 각 집단 간 갈등 정도(심각도)를 확인한 결과,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빈부' 간의 갈등과 '세대' 간 갈등도 각각 78%, 66%로 높은 편이었다.
- ▶ 갈등이 심각한 집단 간에는 얼마나 불편함을 느낄까? '나와 지지정당이 다른 사람' 즉, 위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일 수 있는데 이 경우 40%가 '불편하다'고 응답했고, '나와 경제적 지위가 다른 사람'은 앞선 응답의 절반 가량인 27%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그림] 사회 주요 집단 간 갈등 심각성
(‘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5점 척도, %)



[그림] 타인에 대한 불편함 정도**
(‘매우+대체로’ 불편하다 비율, 4점 척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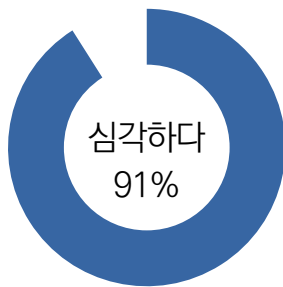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3.01.24. (전국 만 1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한국리서치, 2022.12.27.~12.31.)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신년여론조사', 2023.01.1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 전화면접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022.12.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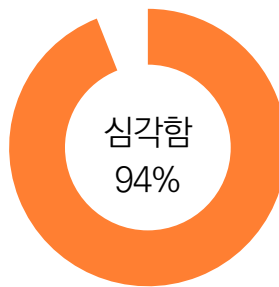
◎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혐오 심각하다고 느껴!

- ▶ 우리 국민의 대다수(91%)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는데, 이런 사회적 갈등 문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등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져 '온·오프라인 상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10점 척도로 6~10점 비율)



[그림] 온·오프라인 상 혐오표현 심각성**
(‘매우+다소’ 심각하다 비율,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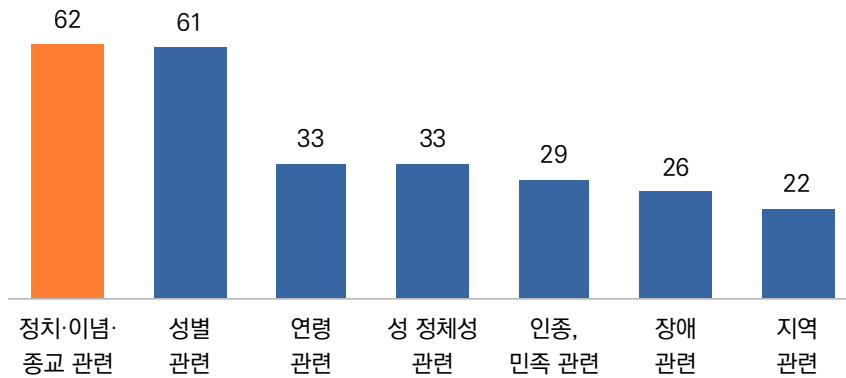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3.01.24. (전국 만 1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한국리서치, 2022.12.27.~12.31.)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2 혐오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2022.12.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209명, 온라인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2.11.4.~14.)

◎ 심각한 혐오표현, 정치·이념·종교 유형이 가장 많아!

- ▶ 혐오표현이 심각하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혐오표현 유형에 대해 물은 결과(1+2+3순위 기준), '정치·이념·종교 관련'(62%)과 '성별 관련'(61%)을 꼽은 비율이 '연령', '성 정체성', '인종', '장애',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림] 심각한 혐오표현 유형 ('혐오표현 심각하다' 동의한 자 대상, 1+2+3순위,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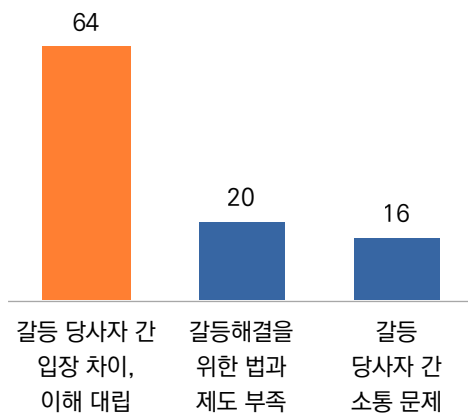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2 혐오표현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2022.12.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1,209명, 온라인 조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2.11.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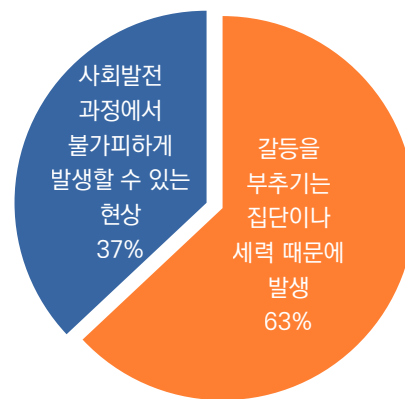
◎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갈등 발생은 갈등 조장하는 세력 때문'!

- ▶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 사회 집단 간 갈등이 '갈등 당사자 간 입장 차이나 이해 대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외에 '법과 제도 부족'이나 '소통 문제'를 꼽은 비율은 각각 20%, 16%였다.
- ▶ 또, 집단 간 갈등은 '사회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응답(37%)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63%)는 입장이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



[그림]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입장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022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3.01.24. (전국 만 1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한국리서치, 2022.12.27.~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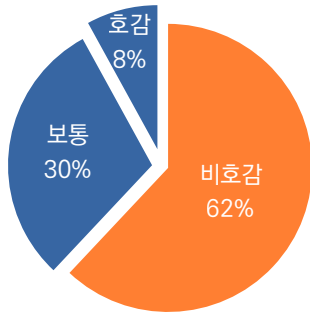
02

[정치 갈등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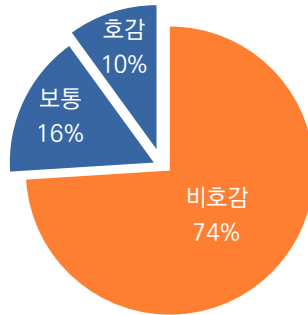
다른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호감보다 7배 높아!

- ▶ 우리나라에서 각각 보수와 진보로 일컬어지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상대 정당에 대해 품고 있는 호감도는 어떠할까? 서로 호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10% 이하로 저조했고, '국민의힘 지지자'의 62%,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4%가 상대 정당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응답했다. 다른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7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그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국민의힘' 지지자)



[그림]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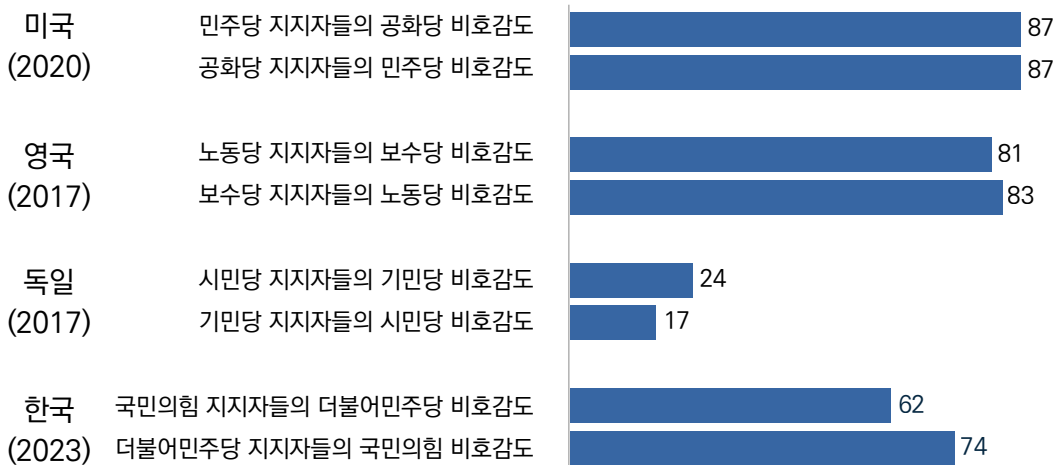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2023.02.
(전국 만 18세 일반국민 1,001명, 대면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2.12.21.~2023.01.15.)
**11점 척도로 0~4점: 비호감, 6~10점: 호감

◎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

- ▶ 다른 국가도 상대 정당에 대해 높은 비호감을 보일까?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물어본 결과, 양당 구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 앞서 언급한 한국의 비호감도('국민의힘 지지자' 62%, '민주당 지지자' 74%) 대비 높았고, 반면 정당 간 연합정치 경험이 있는 독일만 20%대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국제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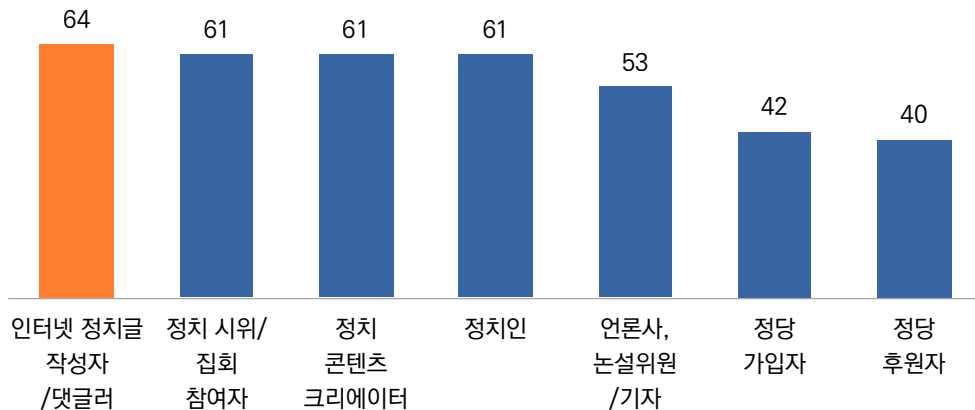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 중 발췌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원자료 분석)
**11점 척도 설문에 대해 0~4점(비호감) 응답의 비율

◎ 정치적 반감의 대상, 정치인보다는 ‘인터넷 정치글 작성자’!

- ▶ 정치적 반감이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 주요 집단을 나열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정치적 반감 정도를 물어본 결과, ‘(나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인터넷 정치글 작성자와 댓글러’가 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치 시위, 집회 참여자’ 61%, ‘유튜버 등 정치 콘텐츠 크리에이터’ 61% 등의 순이었다.
- ▶ 정치적 반감은 ‘정치인’이나 ‘언론사, 기자’(기존에 정보 전달을 장악했던 대중매체) 등보다 나와 의견이 다른 온라인, 뉴미디어상 행위자에게 보다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정치적 반감의 대상 (반감이 ‘매우+약간’ 심하다 비율, 상위 7위,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정치갈등과 선거제도 인식조사(정치 양극화, 선거제도가 문제인가), 2023.03.08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1.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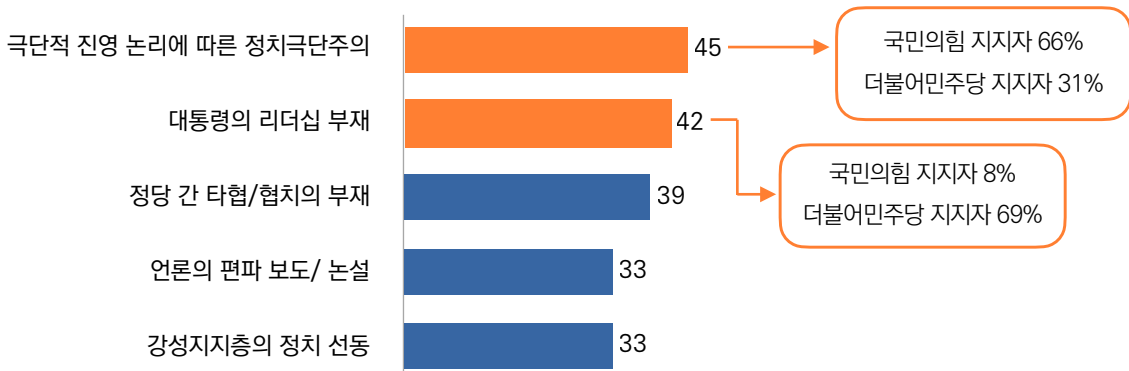
03

[정치갈등의 원인과 견해]

정치갈등의 원인, 지지 정당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

- ▶ 정치갈등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 전체적으로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극단주의’(45%)와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42%)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었다.
- ▶ 지지정당별로 보면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이 판이하게 달랐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는 ‘극단적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극단주의’(66%)를 1위로 꼽은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69%)를 가장 많이 꼽아 양당 지지자 간 큰 인식 차를 보여주었다.

[그림] 정치갈등의 원인 (1+2순위 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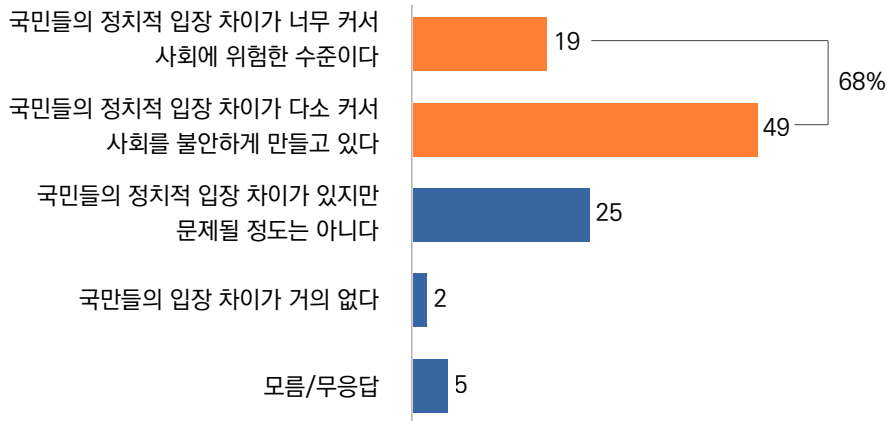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정치갈등과 선거제도 인식조사(정치 양극화, 선거제도가 문제인가), 2023.03.08 (전국의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1.13~16)

◎ 국민들의 정치적 입장 차이 커서 위험하고 불안한 수준이다, 68%

- ▶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입장 차이에 대한 4가지 견해 중 어떤 주장에 가장 공감 가는지를 물었더니 ‘국민들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사회에 위험한 수준이며(19%),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49%)’에 3명 중 2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정치적 입장 차, 즉 이념갈등이 심각하지 않다(문제될 정도 아니다+입장 차 거의 없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

[그림] 정치적 입장 차이에 대한 견해 공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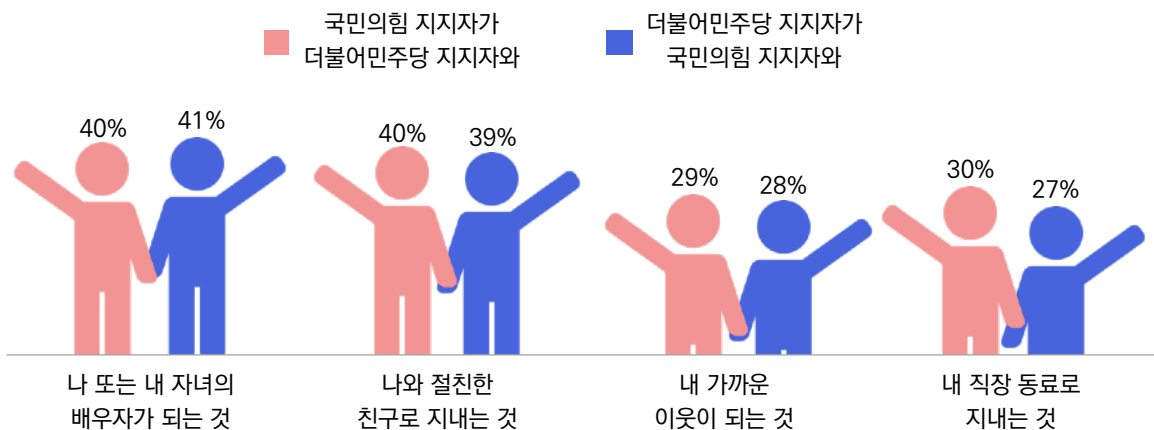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조선일보, '신년여론조사', 2023.01.17.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 전화면접조사, 케이스탯리서치, 2022.12.26.-27)

04

[정치 갈등 실험실] 지지 정당이 다른 배우자 불편해, 40%

- ▶ 서로 다른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결혼하거나 친구가 되는 등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면 어떨까? 이에 한국의 가장 큰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4가지 관계를 제시하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을 확인했다. 그 결과, '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는 양당 지지자 모두 각각 40%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절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 역시 '불편하다'는 응답이 10명 중 4명 수준이었다.
- ▶ 배우자, 친구 등 친밀한 관계일수록,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그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서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느끼는 불편함 ('매우+대체로' 불편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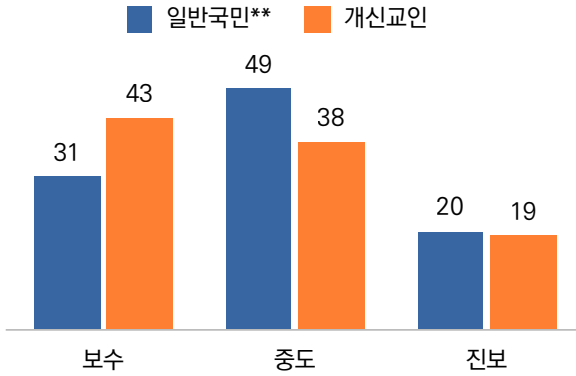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 중 발췌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원자료 분석)

05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 개신교인이 일반국민보다 더 보수적이다!

- ▶ 일반국민과 개신교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 전반적으로 볼 때 개신교인이 일반국민보다 보수적 성향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개신교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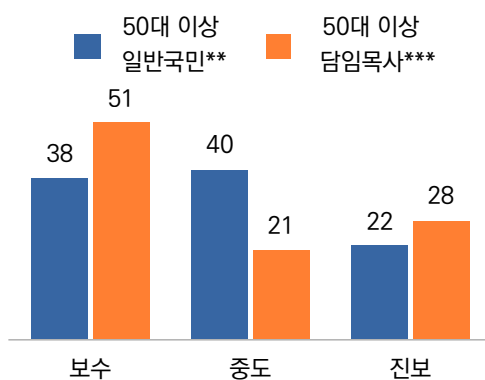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4.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1.09.~16.)

** '2022 한국갤럽 종교 인구 분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신교인 15%, 비개신교인 85%의 비율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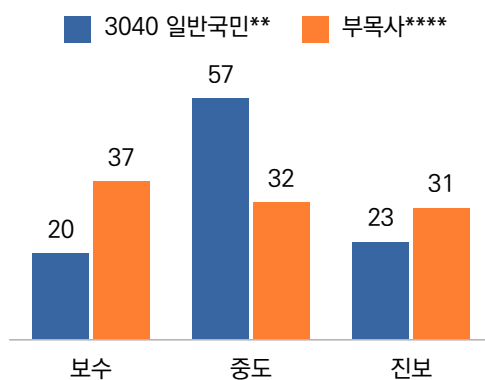
◎ 담임목사의 정치적 성향, 동 연령대 일반국민에 비해 보수적!

- ▶ 담임목사(50대 이상)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동일 연령대(50대 이상)의 일반국민 대비 보수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 ▶ 부목사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국민(30~40대) 대비 보수, 진보 둘 다 높아 전반적으로 정치 성향이 더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담임목사의 정치적 이념 성향 (%)



[그림] 부목사의 정치적 이념 성향 (%)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4.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비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1.09.~16.)

** '2022 한국갤럽 종교 인구 분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신교인 15%, 비개신교인 85%의 비율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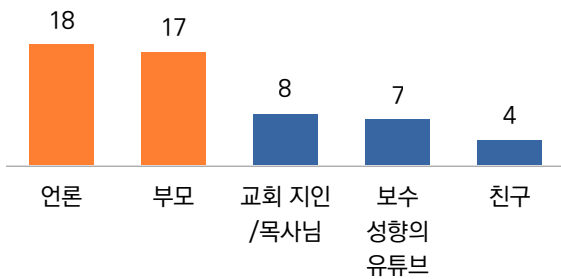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23.04. (개신교 담임 목회자 802명, 온라인조사, 지앤컴리서치, 2023.01.31.~02.12.)

****자료 출처 : 예정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2.06. (전국 교회 부목사 553명, 모바일조사, 지앤컴리서치, 2022.04.2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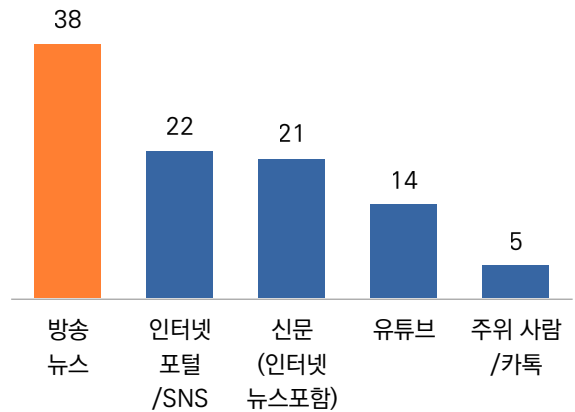
◎ 보수 개신교인, 보수 성향에 영향 미친 사람은 언론/부모 > 교회 지인/목사와 유튜브

- ▶ 개신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보수층에게 보수 성향에 영향 미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했다. 누구한테도 영향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언론', '부모'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회 지인/목사님'이 높아 주목된다.
- ▶ 보수 개신교인이 뉴스/정보를 입수하는 주 경로는 '방송 뉴스'가 38%로 가장 많았다.

[그림] 보수 성향 갖게 영향 미친 사람 (보수 개신교인, 영향받지 않음 응답 제외, 상위 5위, %)



[그림] 정치 뉴스/정보 주 입수 경로 (보수 개신교인, %)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 '보수 기독교인 정치의식 조사', 2020.10.03. (지앤컴리서치, 전국 만 19세 이상 보수 개신교인 570명, 온라인 조사, 2020.09.02~06.)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 요소가 존재한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지역 갈등이 가장 심했지만, 지금은 이념 갈등이 가장 큰 갈등이다. 정치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등 5개 갈등 요인 가운데 지역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4위였고 1위로 나타난 갈등이 진보와 보수의 갈등, 즉 정치 이념 갈등이었다. 이 갈등은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서 '나와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할 정도로 심화하였다. 심지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대 당 지지자가 '나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40%)였다.

정치적 갈등이 인간관계를 멀리 할 정도까지 심화한 것은 정치적 견해가 진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견해 차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서로 조정과 타협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진영화되면 상대방은 무찔러야 할 '적'으로 규정되고 타협은 배신으로 낙인을 찍는다. 그래서 정치는 점점 극단화의 길로 치달게 되었다. 정치가 극단화될수록 진영 참여자 간의 동질감은 공고화되면서 진영의 벽은 더 높고 쌓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정치적 입장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형성되는데, 인터넷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내가 관심을 가지는 콘텐츠가 내게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정보의 편식성이 강화된다. 사회적 소통은 정보의 균형적 교류로 형성이 되는데 정보를 편식할 경우 사회적 소통은 단절되어 자기만의 성에 갇혀 살면서 자기 세계만이 옳다고 하는 신념이 더 굳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갈등, 진영화는 이를 조장하는 세력에 의해 더 촉진된다. 한 진영 편에 선 개인은 자기 입장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정보를 접하면 반가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유튜버들이 많다. 클릭 수가 곧 자기의 경제적 이해에 직결되는 사업 구조를 가진 언론과 유튜버들은 더 일방적으로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제목과 내용에 끌린 독자들은 그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여 언론과 유튜버가 돈을 벌게 해준다. 이렇게 돈을 번 언론과 유튜버는 점점 강화된 진영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치 이념 갈등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설교와 기도 가운데 특정한 정치적 성향이 보일 경우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늘어나고 있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3040세대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목사의 정치적 설교, 성도들의 정치적 연행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굳이 이 데이터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자기의 정치적 견해와 교회 다수의 견해가 달라서 교회를 나가지 않거나 떠난 사례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교회에서의 정치적 견해 표명은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릴 수 있다. 정치적 견해 표명은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정치적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다.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통합된 통전적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정치는 신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서 정치적 견해와 이념이 다를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 직접적인 복지 예산을 늘리느냐 아니면 기업을 성장시켜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노선이 갈린다. 국민을 복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북한과 평화 관계를 맺어서 실현하느냐 아니면 압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느냐는 데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는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공동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자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신중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는 길이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 '3040세대의 신앙생활탐구', 2022. 12.
(http://www.tamgoo.kr/board/bbs/board.php?bo_table=b_resources_2_1&wr_id=144&wr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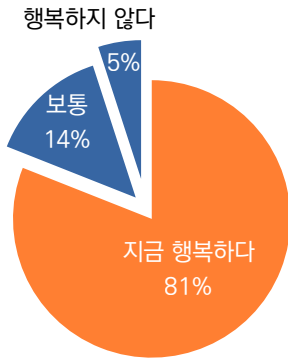
- 1.[어린이들의 행복과 고민]
- 2.[북한에 대한 인식]
- 3.[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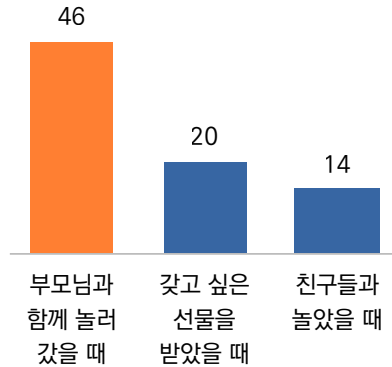
어린이 절반 가까이,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 가장 행복!

- ▶ 어린이날 101주년을 기념해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1,000명의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중 현재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8명으로 높은 편이었고, 가장 행복한 때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님과 함께 놀러 갔을 때’를 꼽은 비율이 절반 가까이(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 ‘친구들과 놀았을 때’ 등이 순이었다.

[그림] 어린이의 현재 행복도**



[그림]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한 때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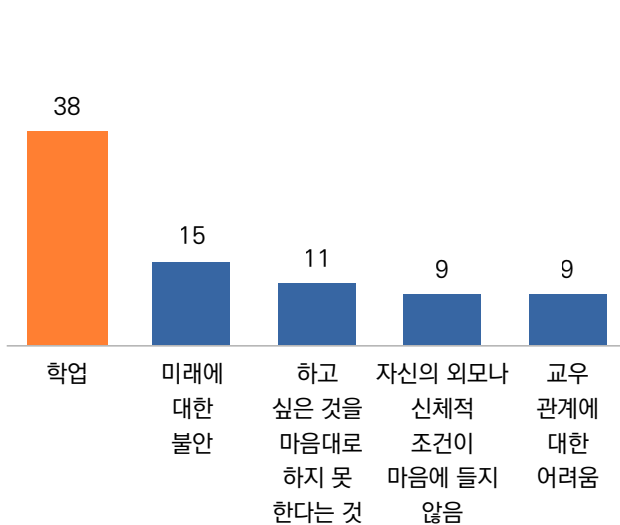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부모님과 함께 놀러갈 때”, 2023.05.02. (전국 초등 4~6학년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5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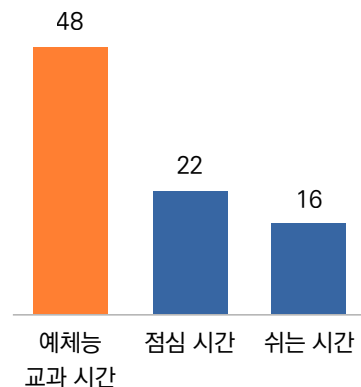
◎ 초등 고학년, 가장 큰 고민은 ‘학업’!

- ▶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업’에 관한 것(38%)이었고,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 15%,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11%, ‘자신의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않음’ 등도 고민으로 꼽았다.
- ▶ 학교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예체능 교과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점심 시간’ 22%, ‘쉬는 시간’ 16%로 학업 외 시간을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86%)이었다.

[그림] 어린이들의 가장 큰 고민 (상위 4위, %)



[그림] 학교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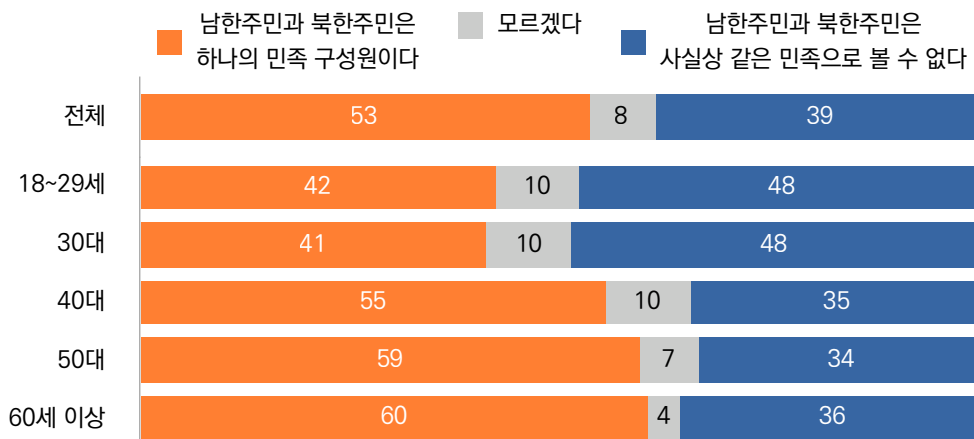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부모님과 함께 놀러갈 때”, 2023.05.02. (전국 초등 4~6학년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30세대 인식, ‘남한과 북한 단일민족 아니다’ 절반 가까이!

- ▶ 최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인식 조사(한국리서치) 결과가 발표됐다. 먼저 민족 관점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은 결과,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하나의 민족 구성원이다’라는 인식이 53%,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은 사실상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가 39%로 응답됐다.
- ▶ 연령별로 보면 ‘2030세대’(48%)에서 ‘남한과 북한주민을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타연령대보다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남북한 단일 민족 여부에 대한 의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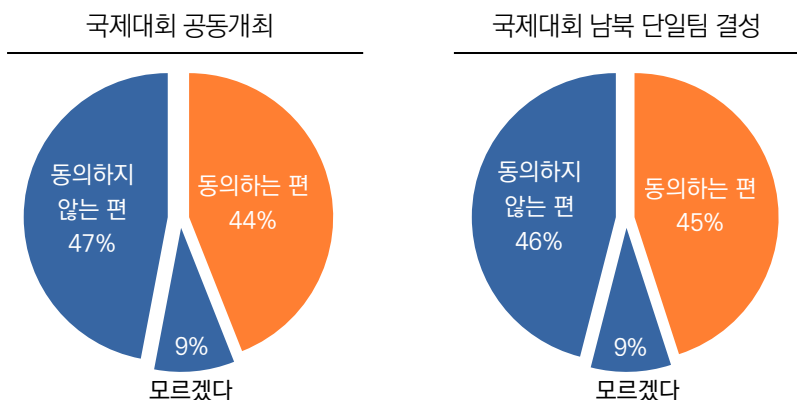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대북인식조사_북한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 방향성 평가, 2023.05.09.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4.07.~04.10)

◎ 북한과 국제대회 단일팀 결성, 찬반 의견 팽팽!

- ▶ 그렇다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거나 남북 단일팀을 결성하는 것에 대해 우리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제대회 공동개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44%, ‘동의하지 않는다’ 47%로 응답했고, ‘남북 단일팀 결성’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림] 남북한 국제대회 공동개최 및 단일팀 결성에 대한 의견**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3 대북인식조사_북한에 대한 인식 및 대북정책 방향성 평가, 2023.05.09.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4.07.~04.10)

**2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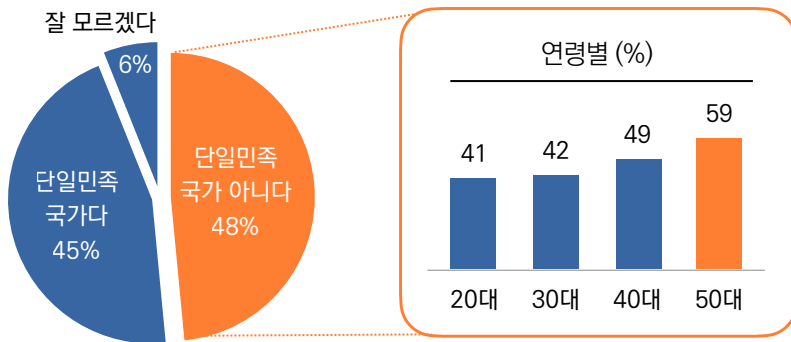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서 시작되는 지방 소멸 문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은 필연적으로 국내 외국인 이민자 유입의 필요성을 불러오게 된다. 최근 한국갤럽이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소개한다.



우리국민 2명 중 1명, ‘한국은 단일민족 아니다’!

- ▶ 우리국민은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전체 응답자(19~59세)의 45%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보았고, 48%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는 견해가 3%p 더 높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주목된다.

[그림] 우리나라의 단일민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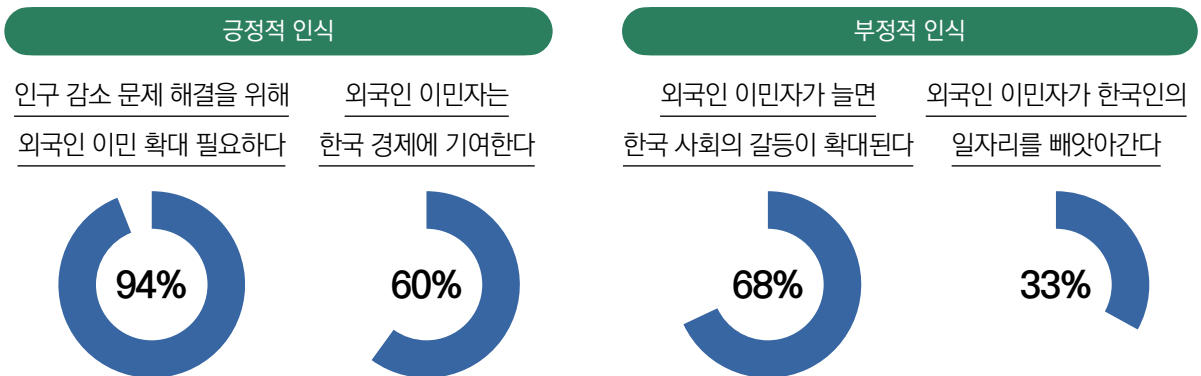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결혼과 양육 관련 인식(3)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생각, 2023.05.11. (전국 만 19~59세 1,202명, 모바일조사, 2022.08.12.~22)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91#D>)

◎ ‘외국인 이민 확대 필요’에 대다수 동의하나, ‘사회 갈등 확대’ 우려 의견도 높아!

- ▶ 외국인 이민자와 관련된 여러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외국인 이민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입장(동의율 94%)이었고, ‘이민자의 경제 기여’ 의견에도 10명 중 6명은 ‘동의한다’라고 응답해 비교적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한편 ‘외국인 이민자가 늘면 한국 사회 갈등이 확대된다’에 68%, ‘외국인 이민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에 대해서도 3명 중 1명꼴로 동의해 외국인 이민자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림] 외국인 이민자 관련 인식 (‘동의한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결혼과 양육 관련 인식(3)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생각, 2023.05.11. (전국 만 19~59세 1,202명, 모바일조사, 2022.08.12.~22)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391#D>)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43호 \(2023년 5월 3주\)](#)

- 정당 지지도, 경제 전망: 향후 1년 경기, 살림살이, 국제 분쟁 등

[전두환 손자 전우원 '5·18 사죄'에...국민 67% "잘했다"](#)

국민일보_2023.05.13.

◎ 사회 일반

["그냥 쉽다" 4050보다 많다...2030서 벌어진 이례적 현상](#)

중앙일보_2023.05.16.

[고독사 위험군 1인가구 5명 중 1명꼴...50대가 가장 '위험'](#)

연합뉴스_2023.05.18.

["내 자식은 의대 갔으면"...초·중학생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이과' 선호](#)

문화일보_2023.05.21.

[상위 1% 부자가 목표라면? '이 정도' 순자산 가져야 합니다](#)

조선일보_2023.05.20.

[대한민국 '상위1% 부자' 누굴까...순자산 29억원 넘어야](#)

연합뉴스_2023.05.20.

[사랑도 가족도 '돈'으로 따져...정신건강 황폐한 한국인](#)

중앙일보_2023.05.20.

["인구 절벽 시대, 여자도 군대 가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_2023.05.20.

[값비싼 '한우고기' 누가 즐겨 먹나 했더니...](#)

경향신문_2023.05.22.

◎ 청년 / 청소년

['우리 반은 20명'...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하는 과밀학급 해소법](#)

매일경제_2023.05.18.

["믿고 얘기할 친구 없어"...서울 학생 10년새 교우관계 나빠졌다](#)

중앙일보_2023.05.16.

[일본 애니메이션 보고 자란 2030 "노재팬"보다 "고재팬"](#)

중앙일보_2023.05.20.

[잘파세대 3명 중 1명 "한국인인 것 싫다"... "경쟁 심해 피곤"](#)

동아일보_2023.05.13.

◎ 기업 / 경제

[고물가에 인기 치솟는 '대용량 식품'...도대체 얼마나 많이 샀나 보니](#)

매일경제_2023.05.1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성장을 0% ‘끔찍한 경고’ 현실되나…저출산 충격 만만찮다는데](#)

매일경제_2023.05.16.

['7말8초 여름휴가' 달라졌다, 직장인 10명중 4명이 택한 시기](#)

중앙일보_2023.05.22.

[온라인 면접선 'A' 대면선 'F'… 기업들 '코로나 학번' 속앓이](#)

중앙일보_2023.05.18.

[4050들 알바 뛰러 나온다… 지원자 1년새 2~3배 폭증](#)

조선일보_2023.05.18.

◎ 국제

[이민자 급증 캐나다 역차별 불만도 커져](#)

매일경제_2023.05.18.

◎ 건강

[간병비 상승 폭 12% 역대 최대… 고비용에 2명 중 1명 가족이 돌봐](#)

조선일보_2023.05.19.

[여성암 사망률 1위 '난소암'…정기 검진과 조기 발견 중요](#)

동아일보_2023.05.19.

[잠들기 전 '이 행동', 불면증 악화시킨다](#)

동아일보_2023.05.22.

◎ 기독교 / 종교

[엔데믹 시대 '하이브리드 교회'로 목회 디자인하라](#)

더미션(국민일보)_2023.05.17.

[입양 및 위탁 가정 등 다양한 입양을 권고받는 교회 성도들](#)

크리스찬타임스_2023.05.19.

[종교에 참여하는 이들은 줄어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크리스찬타임스_2023.05.19.

[미국 Z세대, 3년간 대면 예배 출석률 '급증'](#)

기독일보_2023.05.16.

◎ 기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3가지](#)

헬스조선_2023.05.21.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음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솔,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 연구소 소식 1. 다음주 [넘버즈] 휴간 안내 |

- 다음주(5월 30일)는 5주 차(화요일 기준) 연구주간으로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구소 소식 2. 2023 청소년사역 컨퍼런스 |

우리 연구소와 함께 한국 월드비전, 알파 코리아, CTS,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그리고 브리지임팩트사역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청소년사역 컨퍼런스」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일 시 : 2023년 7월 3일(월) ~ 5일(수)
장 소 : 신용산교회 (용산구 서빙고로 17)
문 의 : 02-2078-7000

